

한국원자력학회 제29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김학노
소속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위	전략사업부원장

□ 학력사항 (최종)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KAIST	원자력공학	박사	1994

□ 경력사항 (최근 5개)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2014.02 ~ 현재	원자력(연)	전략사업부원장	원자력(연)의 전략사업(SFR 등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핵연료주기기술개발, 연구로기술개발, 소형원자로기술개발, 첨단 핵연료기술개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총괄
2009.05~2011.11	원자력(연)	SMART개발본부장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 인가 획득 사업 총괄
2008.07~2009.04	원자력(연)	원자로시스템기술개발본부장	SFR, VHTR, SMART, 동력로 개발 총괄 조정
2008.01~2008.06	원자력(연)	정책연구부장	국가 원자력정책 수립 지원
2005.05~2007.12	원자력(연)	하나로이용연구부장	하나로 이용연구 총괄 (냉중성자연구기반시설구축사업 및 노내 핵연료조사시험설비 구축 사업책임자)

□ 활동 내역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3.09 ~ 2015.8	장학위원회 위원	포상 및 장학 정책 심의 확정
2006.09 ~ 2010.08	방사선 이용 및 방호 연구부회장	동 연구부회의 활성화 주도
2002.09 ~ 현재	평의원	학회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
현재	원자로물리 및 계산과학 연구부회 방사선이용 및 방호 연구부회	연구부회 활동

2. 기타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6. 4 ~ 현재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Vice Chair	GIF 국제협력 책임
2014 ~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	원자력진흥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기술 자문
2012	공공기관/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평가위원회 산하 원자력분야 기관 (KINS, KINAC, KIRAMS) 기관평가 위원장	평가 총괄 및 조정

□ 출마소견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략사업부원장 김 학노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에 지원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2가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통 - 교류 - 리더십” 그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기술 및 산업의 세계적 우수성과 더불어, 한국원자력학회 또한 원자력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내 원전의 불미스런 사건들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졌고, 우리 원자력계는 다시금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학회는 원자력 학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원자력학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회는 국내 및 해외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의 폭을 넓히며, **학문적 리더십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를 **문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교류-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다음과 같이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하나, 소통 : “소통이 먼저다”]

소통은 모든 활동의 기본입니다. 소통은 모든 활동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로 원자력계에 덧씌워진 불통의 이미지를 타파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통이 원자력계를 그래도 지탱하게 하는 주춧돌이었다면 지금 그 주춧돌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서까래를 올려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유관기관간의 소통, 사회와의 소통이 진정성을 가지고 확대되도록 우리 학회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에서 이해와 수용, 그리고 협력이 나오**고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 교류 : “교류는 융합이다”]

우리 학회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융합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의 교류가 원자력학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학문과 융합세션을 구성하는 등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융합은 원자력학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 학문적 리더십 : “자존심이 여기에 있다”]

우리 학회는 NET의 수월성 제고를 계속 도모하여 왔고, 원자력분야의 현안에 대해 기술중립적 평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우리 학회의 학문적 리더십은 이렇게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NET의 학문적 수월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특별판 정기 간행 또는 학문적 다원화 방안 고려

둘째, 매년 나타나는 특별 현안들에 요구되는 융합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슈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수요지향형으로 강화

셋째, 연구부회의 학문적 리더십의 중심화. 연구부회의 학문적 깊이를 모든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회별 보고서 발간 고려

넷째,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공생하는 생태계를 가진 원자력산업생태계의 경쟁력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학회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인 역량 제고의 장을 제공

다섯째, 우리 학회의 학문적 우수성이 학술대회의 국제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학술대회가 세계의 학술대회가 되도록 노력

학문적 리더십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기에 이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학회의 기본이라 믿습니다.

둘째, 회원과 함께하는 학회로 가꾸겠습니다.

원자력학회는 회원들의 것입니다. 지금도 회원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학회로 명성이 높지만, 더욱 회원들이 함께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리더십을 위한 활동에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학회, 세계화에 걸맞은 학회 운영을 지향하며, 우리 학회의 얼굴들(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이 이에 걸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다양한 경험, 정부 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원자력학회의 발전에 부족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5

성명 : 김 학 노 (서명)